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짐 팔리어 선교사는 수 개월 동안 "사랑"이란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은 것이, '좋아하다' 혹은 '원하다'였습니다. 짐 선교사는 아내 재키와 함께 파푸아 뉴기니의 마나갈라시 부족과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 선교사 부부는 우카롭과 본부로 가서 언어학 관련 전문가 자문을 얻어 알파벳 시스템을 마무리지어야 해서, 현지인 언어조력자 이사이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 혹시라도 향수병에 걸릴까봐 그의 친구 타비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친구와 언어학 자문 위원이 유니스 파이크의 도움으로 알파벳 시스템을 마무리 짓고 읽기 자료를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랑'에 맞는 단어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어느날 점심 시간 마을에 있는 타비아의 여자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타비아는 아직 글을 읽고 쓸 줄 몰랐기에 재키 선교사가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와사피는 짧게 마을 소식을 전하고는 대담하게 타비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요 14-15	요 16-18	요 19-21	행 1-3	행 4-6	행 7-8	행 9-10

“네가 가고난 뒤로 모든 날들이 그냥 깜깜한 밤중 같아. 네가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네게 마음을 주는 와사피로부터.”

짐 선교사는 자기가 방금 마나갈라시 언어의 "사랑"이란 말을 찾은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 단어의 용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연인들간에 사용됩니다. 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용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지요.”

“바로 이거야! ” 짐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마치 무지개 끝에서 금 덩이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해’란 말이야! ”

바로 그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이제 마나갈라시 말로 생명샘처럼 솟아나게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얼마나 마나갈라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확신을 갖고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리어 선교사 부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도 (요 21:15-18) ‘*oja maho*’ 즉

‘마음을 드린다’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쓰인 *아가피*와 *필로스*라는 헬라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교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임.)

그런데 재키는 슬프게도 마을의 대모 아바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미가 우리 집 앞에 앉아 있었던 걸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을 거라고 말도 못했는데... 안아주고 또 보자고 인사도 못했는데... “엄마, 내 마음을 드려요” 라고 못했는데...’ 하지만 더 참담한 것은, 아바미가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못 듣고 세상을 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다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나갈라시 말을 배워야 해.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어야지.” (Jaki Parlier, *Poking Holes in the Darkness*, pp. 57-65)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왜 이제서야 전해주시니까?”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자기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그들의 말로 성경이 전해지도록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게 해주세요.



"God gives His heart to us"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For several months, Jim Parlier had been looking for the word for "love". But the closest words he could find were 'to like', *manímo*, and 'to want' *ura renío*. With his wife Jaki, he worked for the Managalasi people in Papua New Guinea. Once, they had to take one of the language helpers, Isai, to the SIL Ukarumpa Centre to get a linguistic consultation and finalize the alphabet system. But he was too shy and the Parliers decided to take his friend Taiva with him so that he would be less homesick.

Thankfully, with the good help of the linguistics consultant, the Parliers and Isai were able to finalize the alphabet system of the Managalasi language and print some premiers. But God's provision went further when they were able to find the right word for love. When they ate lunch together one day, they got a letter from Taiva's girlfriend Wasapi, who was back at the village. Tavia was not still able to read and Jaki did it for him. After brief updates of the village news, she boldly expressed her love for him.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Wycliffe

Nov 5	Nov 6	Nov 7	Nov 8	Nov 9	Nov 10	Nov 11
Joh 14-15	Joh 16-18	Joh 19-21	Act 1-3	Act 4-6	Act 7-8	Act 9-10

"The days all see like night since you left," she wrote. "Every day is dark. I cry huge tears for you. I give you my heart. Wasapi"

Suddenly, Jim realized that he had found the Managalasi word for "love." He double checked its usage. It is used between the lovers. He asked if it is also use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f course. Everyone gives their heart to their children."

"That's it!" Jim exclaimed, as though he found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That's the expression for 'I love you'"

It was a phrase that would make the familiar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pring to life in their language. Jim could now translate John 3:16 with confidence that they would understand how much God loved them.

They were also able to use the same word, *'oja ma-ho* 'to give one's heart' to convey how much Peter

loved Jesus back in John 21:15-18. (The Greek words *agapao* and *phileo* were used interchangeably.)

But Jaki was filled with sorrow when she received news from the village that her godmother Avami had passed away.

Thoughts of the last day I saw her sitting on the ground in front of our house rushed to my brain. I didn't tell her I would miss her... I didn't hug her goodbye. I didn't say, "Wato, I give you my Heart." But worse than anything, my village mother died without knowing that Jesus, the Son of God, died for her sins. Trying to keep the tears in check, I conveyed my feelings to Jim.

"That's why we've got to learn the language as fast as we can, so that no more of our friends will die before they hear about the Lord," Jim replied.

(quotations from, pp. 57-65, *Poking Holes in the Darkness*, by Jaki Parlier)

People often ask us, "why did it take so long for you to come and tell how much God 'gives His heart to us?'"



Week 44 Prayer: Lord, thank You for giving all nations hearts that can know God's love! May Your Church pray and strive even more so that God's heart of love may be given in their own languages to those who still do not know that love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Bible in their own language.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Weekly Prayers for
Bible Translation